인사이트

공장은 AI 도입 효과를 경영진 발표가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이 AI 결과를 고친 횟수로 판정해야 한다

방동걸 (주)웨이스 대표이사
2026년 11월 28일

공장이 AI 도입 효과를 판정할 때 먼저 볼 것은 회사가 발표한 실적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이 AI 결과를 몇 번 고쳐 썼는지입니다. 결제 회사 블록(Block)은 2026년 2월 1만 명이 넘던 직원 수를 6천 명 아래로 줄인다고 발표했고, 같은 해 3분기 매출총이익은 전년보다 22% 늘었다고 주주서한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3월 영국 가디언이 취재한 블록 현직 직원 한 사람은 약 3개월 전 기준으로 AI가 만든 코드 변경의 약 95%를 여전히 사람이 손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장 운영의 두뇌인 제조 AI VEXPLOR를 만드는 웨이스는 이 두 가지를 서로 다른 질문으로 봅니다. 회사 전체의 결과가 어떤가와 AI가 낸 결과물이 현장에서 그대로 쓰였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이 글은 생산 · 품질 · 설비 담당자가 AI 도입 효과를 판정할 때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공장은 AI 도입 효과를 경영진 발표가 아니라 사람이 AI 결과를 고친 횟수로 판정해야 합니다

01

실적 발표와 현장 증언은 서로 다른 것을 봅니다

블록 사례에서 나온 수치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	값	출처
2026년 2월 감원	4,000명 넘게	블록 주주서한
3분기 매출총이익	전년 대비 22% 증가	블록 주주서한
AI 코드 변경 중 사람 손	약 95%(3개월 전 기준)	가디언 · 현직 1명

매출총이익은 회사 전체가 낸 결과입니다. 그 숫자에는 AI 말고도 여러 요인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반면 95%라는 증언이 가리키는 것은 AI 결과물이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쓰였는가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이라 회사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묻는 질문이 다릅니다.

두 숫자 중 한쪽이 틀렸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AI가 일을 얼마나 맡았는가」라는 질문에는 실적 발표보다 현장 기록이 더 가까운 답을 줍니다.

02

공장에서 AI가 낸 결과는 대개 사람이 한 번 더 손봅니다

공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AI가 생산계획 초안을 내면 계획 담당자가 설비 사정을 보고 순서를 바꿉니다. AI가 불량으로 판정한 제품을 검사원이 다시 보고 양품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AI가 설비 점검을 권고해도 보전팀은 생산 일정에 맞춰 날짜를 옮깁니다.

AI가 낸 결과	사람이 하는 일	남겨야 할 기록
생산계획 초안	순서 · 수량 수정	고친 항목과 이유
불량 판정	재판정	바뀐 판정과 이유
점검 권고	날짜 조정 · 보류	미룬 이유

이런 손질은 잘못이 아닙니다. 현장 사람이 AI가 모르는 사정을 채워 넣는 일이자, 공장이 AI를 안전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이 손질이 기록에 남지 않을 때 생깁니다. 담당자가 화면에서 값을 고쳐 저장하면 시스템에는 고친 뒤의 값만 남고, AI가 처음 낸 값과 고친 이유는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에서 AI가 낸 결과는 대개 사람이 한 번 더 손봅니다

03

고친 횟수를 남기면 AI가 실제로 맡은 일의 크기가 보입니다

AI 도입 효과를 판정하는 일은 AI 결과를 세 가지로 나눠 기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 **그대로 쓴 것** — AI의 결과를 사람이 손대지 않고 승인해 실행한 것.
- **고쳐서 쓴 것** — AI의 결과를 받아들이되 값이나 순서를 바꿔 실행한 것.
- **쓰지 않은 것** — AI의 결과를 보고도 사람이 다른 판단을 한 것.

이 세 가지 비율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곧 AI가 공장에서 맡은 일의 크기입니다. 고쳐서 쓴 비율이 몇 달째 줄지 않는다면 시스템 설정에서 AI에게 넓은 권한을 주었더라도 실제로는 사람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록에서 보이는 것	뜻	다음 할 일
그대로 쓴 비율이 늘어남	AI가 일을 맡기 시작함	맡길 범위 검토
고친 비율이 그대로	사람이 계속 일함	고친 이유 분석
쓰지 않은 비율이 늘어남	현장이 AI를 믿지 않음	판정 기준 재점검

04

횟수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친 이유가 함께 남아야 합니다

고친 횟수로는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지만, 왜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AI가 틀려서 고친 것, 그날 원자재가 바뀌어서 고친 것, 고객 납기가 당겨져서 고친 것은 같은 수정이어도 다음에 할 일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값을 고칠 때는 이유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이유를 목록에서 고르게 한다면 첫 항목만 계속 선택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바쁜 현장에서는 맨 위 항목을 습관처럼 고르기 쉽습니다. 그렇게 쌓인 기록은 있어도 정보가 없습니다.

고친 이유가 쌓이면 AI 자체를 고쳐야 할 곳과 AI에게 공장 조건을 알려 줘야 할 곳이 구분됩니다. 앞의 경우는 모델을 다시 손봐야 하고, 뒤의 경우는 기록을 연결해야 합니다.



횟수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친 이유가 함께 남아야 합니다

05

조직을 바꾸는 결정은 이 기록이 쌓인 뒤에 내려야 합니다

AI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결정은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블록은 2월 감원 뒤 11월 초에도 고객 운영 · 위험 운영 · 학습 · 콘텐츠 운영 팀에서 추가 감원을 통보했다고 보도됐습니다(비즈니스 인사이더, 인원은 확인되지 않음). 허브스팟을 세운 브라이언 핼리건은 회사를 세운 지 4년쯤 됐을 때 조직도와 직함을 없앴다가 약 9개월 만에 되돌렸다고 회고했습니다(세쿼이아 팟캐스트).

공장에서는 이 결정이 더 무겁습니다. 현장 사람이 AI 결과를 고치는 까닭은 대개 그 사람만 아는 설비 사정과 공정 조건에 있습니다. 그 손질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전에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면 공장은 AI가 모르는 사정을 다시 손으로 메워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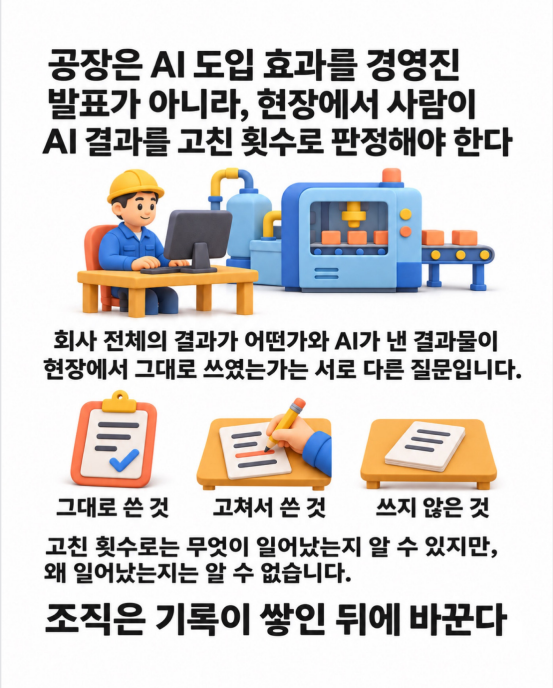
순서는 반대여야 합니다. 먼저 AI 결과가 그대로 쓰였는지, 고쳐 쓰였는지, 쓰이지 않았는지와 그 이유를 몇 달 동안 남깁니다. 그 기록에서 사람이 더 이상 고치지 않는 일이 보이면 그때 그 일을 AI에게 맡기는 범위를 넓힙니다.

06

AI가 공장 일을 얼마나 맡았는지는 발표가 아니라 고친 기록이 말합니다

AI 도입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두 가지 물음이 섞여 있습니다. 회사가 잘되고 있는가, 그리고 AI가 실제로 일을 맡고 있는가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발표와 현장 기록을 나눈다** — 실적 발표는 회사 전체를, 현장 기록은 AI 결과물이 쓰였는지를 본다.
- **AI 결과를 세 가지로 남긴다** — 그대로 쓴 것, 고쳐서 쓴 것, 쓰지 않은 것.
- **고친 이유를 함께 남긴다** — 이유가 있어야 AI를 고칠지 공장 조건을 알려 줄지 나뉜다.
- **목록 첫 항목만 쌓이는지 본다** — 기록은 있어도 정보가 없는 상태를 막는다.
- **조직은 기록이 쌓인 뒤에 바꾼다** — 사람이 더 고치지 않는 일부터 AI에게 맡긴다.



이 글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달 회의에서 AI 도입 효과를 보고할 때 실적 그래프 옆에 「AI 결과를 그대로 쓴 것 · 고쳐 쓴 것 · 쓰지 않은 것」 세 줄을 함께 놓아 보면 됩니다. 그 세 줄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공장은 AI에게 실제로 일을 맡긴 것입니다.

WACE(웨이스)는 공장 운영의 두뇌인 제조 AI VEXPLOR를 만드는 회사다.

07

함께 읽어보세요

- 웨이스는 VEXPLOR가 공장 일을 얼마나 맡았는지를 발표가 아니라 운전 로그로 판정합니다
- 잭 도시가 AI 조직의 조건으로 내건 「회사 월드 모델」, 공장에서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 AI를 조직도에 올린 회사의 관리자는 왜 AI 직원이 쓴 문서에서 오류를 덜 찾는가

원문 blog.vexplor.com/post/factory-ai-judge-by-human-fixes
발행 2026년 11월 28일 · 방동걸 (주)웨이스 대표이사

회사 주식회사 웨이스 (WACE Inc.) · 대표이사 방동걸 · 사업자등록번호 439-87-02852
주소 (18462) 경기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 150, 에이동(A동) 1702-1708호 (영천동, 실리콘앨리동탄)
연락처 전화 070-4730-0629 · contact@wace.me
홈페이지 wace.me · linkedin.com/company/wace-inc

원문 홈페이지 링크드인